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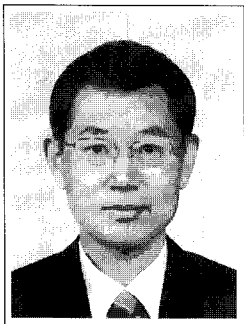


# IAEA 제54차 정기총회

- 주요 회담, 회의 내용, 기술전시회 -

조 승 호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국제협력실장



**제** 54차 IAEA 정기총회가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54차 정기총회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메시지 대독과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의 각 원자력 분야에 대한 IAEA 역할 언급으로 행사를 시작하였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메시지를 통해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해 원자력 안전 및 방호, 원자력 기반 구축에 IAEA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또한 향후 핵군축 관련 핵 검증 및 핵투명성, 불가역성 확보에 있어 IAEA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대표단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두산중공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교체 수석대표로 참석한 심윤조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중심으로 한 비엔나 현지 대표부 직원들도 IAEA 54주년 행사에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였다.

대표단은 회의 기간에 열린 과학포럼, 고위안전규제자회의, 아태지역 협력협정(RCA)회의 등 다양한 병행 회의에 참석해 핵의학, 원자력 안전규제, 차기 RCA 사업 착수 등 원자력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의 양자 회담 결과와 정기총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인천대 기계공학과 졸업  
한양대 환경공학석사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기계주무관,  
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팀장, 월성원  
전 검사 PM, ITER PM

## 수석대표 양자 회담

이번 총회 기간 동안 한국은 UAE, 미국 NRC, 요르단, 몽골, IAEA 사무총장, 수단 등 6차례의 양자 회담을 가져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보여줬다.



### 1. UAE 외무 장관

UAE 수석대표인 Gargash 외무 장관과의 양자회담이 9월 20일 있었다. 회담에서 이주호 장관은 한국은 경제 개발 경험 및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수주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부상한 UAE와 함께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을 나타내고, UAE 원전은 한국의 최초 원전 수출 사례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원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안전 규제 체제를 UAE에 전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원자력안전규제 협력약정을 바탕으로 한국의 통합규제지원시스템 전수를 통한 규제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Gargash 외무장관은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다방면으로 발전하였음을 언급하면서 한국형 원전 도입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기술력, 안정성, 경쟁력 때문임을 밝혔다.

Gargash 외무장관은 UAE 원전 사업은 양국 간 협력을 여러 분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임을 설명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오랜 기간 지속될 것임을 희망한다고 표명하였다.

### 2. 요르단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UAE에 이어, 요르단 수석대표 Toukan 원자력위원회 위원장과의 오찬회담이 개최되었다.

이주호 장관은 요르단 수석대표와 요르단 연구로 사업 진행 현황 및 교육 훈련 지원등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가 한국 최초의 원자력 관련 수출 사례인 만큼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다할 것이며, 특히 요르단 과학기술대학교의 원자력 전공자들의 원자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통해 지속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임을 표명하였다.

Toukan 위원장은 요르단이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한국과 함께 진행하게 된 것은 요르단이 한국의 원자력 발전 역사를 모델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함께 원자력 분야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요르단이 상용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 3. 미국 NRC 위원장

같은 날 오후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Gregory Jaczko 위원장을 대표로 한 원자력규제위원회와 한국 교과부 간 원자력안전규제협력 약정 개정 서명식을 가졌으며 한-미 안전규제 국제인력 양성을 위한 공제 체계 구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주호 장관은 원자력안전규제협력 안정 기간 연장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양국이 1976년부터 규제요원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음을 강조하였고 이번 협력 기간 연장을 통해 양국의 안전규제 협력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주호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이후 한국이 세계 5위의 원자력국가로 성장했음을 설명하면서 한-미원자력협정이 지난 50년간의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측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Gregory Jaczko 원자력규제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이 오랜 시간 동안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에서 협력하여 왔으며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원자력 안전 기술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였다.

### 4. 몽골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9월 21일 오전, 이주호 장관은 몽골 수석대표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원자력 인프라 개발, 안전 규제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응용 부분의 협력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몽골 원자력위원회 Enkhbat 위원장은 몽골의 우라늄 채굴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광물 자원공사(KORES) 측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는 원자력 발전, 이용 및 방사선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Enkibat 원자력위원장은 광활한 대륙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를 가진 몽골의 특성상 대형 원전보다 중소형원자로(SMART)의 도입이 몽골의 전력 공급에 적합함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력하에 중소형원자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수행할 것을 희망하였다.

우리 측은 몽골의 중소형원자로 타당성 조사 요청과 관련, 소형 원전 건립을 위해 몽골의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한 적용 가능성 검토(현재 몽골의 전력 수요, 미래 전력 수요 예측치, 인프라 및 인력 등)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먼저 공동 타당성 조사를 위해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

## 5. IAEA 사무총장

9월 21일 오후에는 IAEA Yukiya Amano 사무총장과 회담이 있었다. 이주호 장관은 IAEA 아마노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안전포럼에 참석한 것에 감사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필수 박사의 IAEA 방사선 수송 및 폐기물 안전 국장직 진출에 대한 사무총장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작년 원자력발전국장에 선임된 박종균 박사와 함께 한필수 박사 또한 향후 IAEA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쁨을 표시하였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한필수 박사가 우수한 역량으로 인해 선발된 것이며 앞으로 한국 전문가들이 IAEA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여 IAEA의 발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 협력을 약속하였으며, 한국은 IAEA 암퇴치사업(PACT)에 활용하기 위한 한국 민간 기부금을 IAEA 기술전시회를 통해 IAEA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였다.

## 6. 수단 과학기술부 장관

마지막 양자회담은 수단이었다. 수단과의 양자회담은 미리 계획되지 않았으나, 수단측의 요청으로 한국 기술전시회 개막식 종료 후 전시회장에서 급히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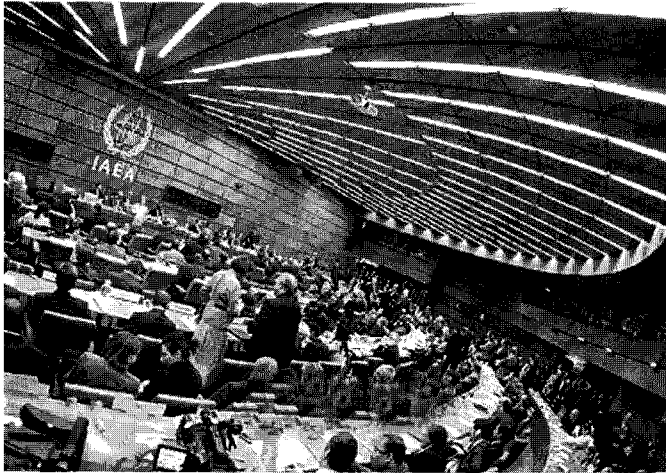
수단 수석대표인 Bushra 과학기술부 장관은 미래에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 풍력, 태양열 발전 등을 고려중이며, 그중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한국과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원자력 인력 양성 분야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측은 한국 원자력 기술의 경쟁력 및 원자력의 다양한 이용 분야 및 한국의 원자력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자세한 협력 분야를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 제54차 정기총회 주요 회의

#### 1. 정기총회 개요

IAEA 정기총회는 본회의(Plenary), 운영위원회(General Committee) 및 전체위원회(Committee



대표단은 회의 기간에 열린 과학포럼, 고위안전규제자회의, 아태지역협력협정(RCA)회의 등 다양한 병행 회의에 참석해 핵의학, 원자력 안전규제, 차기 RCA 사업 착수 등 원자력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of the Whole)로 운영된다.본회의는 IAEA 정기총회의 실제 진행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본회의의 시작과 끝이 정기총회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에 개최하여 금요일에 폐회한다.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 기간 중에 별도로 개최되고 전체위원회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개최된다. 운영위원회를 총회 의장단 회의라고 한다면, 전체위원회는 예산 관련 의제 및 본회의에서 쉽게 합의가 어려운 의제에 대해 각 의제별 결론을 도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실무회의라고 할 수 있다.

## 2. 본회의

본회의는 IAEA 사무총장과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고 본회의, 운영위원회, 전체위원회 의장단 선출 및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며 전체위원회에 위임한 의제에 대한 최종 결의안을 채택한다. 본회의에서는 의장(President)과 8명의 부의장(Vice-President)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장단을 선출한다. 총회 의장은 8명의 부의장과 전체위원회 의장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진행을 맡는다.

제54차 정기총회 본회의는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을 포함하는 일반 토의 및 2009년 연례보고서 의제

를 비롯하여 북핵 문제, 중동 및 이스라엘 핵위협 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3. 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본회의의 위임 사항을 처리 결정하며, 예산, 결산, 사업 현황, 계획 등의 결정 사항 및 회원국 간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54차 정기총회 전체위원회는 지난 6월 PBC(사업예산위원회)와 6월 이사회가 결정한 2009년 결산서, 2011년 예산 등을 최종 승인하였고, 원자력 기술협력, 안전 및 안전 조치 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한국 기조연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월 20일 수석대표 기조연설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와 핵투명성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지와 노력을 소개하였다.

이주호 장관은 한국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전을 수출하게 된 바, 수출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원전 도입국에게 기술뿐 아니라 안전에 관한 시스템과 제도를 철저히 전수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IAEA가 주관하는 원자력 안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원전 도입국들의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의 IAEA EBP 사업 기여금을 대폭 확대(2009년 10만불 → 2010~2012년 200만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주호 장관은 국가 간 원자력 이용 격차 완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PACT 등 IAEA의 개도국 방사선 의료 지원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하고, 관련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 참여 및 이행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2012년 예정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국가로서 IAEA와 여타 국제



제14차 IAEA 한국 기술전시회에 함께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심윤조 주오스트리아 대사,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 한국대표단 및 IAEA 관계자

파트너십 참여를 통해 핵안보 증진을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북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이 앞으로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IAEA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특히, 이주호 장관은 국가 간 원자력 격차 완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원자력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에너지원으로 IAEA를 중심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제14차 IAEA 기술전시회

IAEA 회의 기간 동안 제14차 한국 기술전시회가 개최되었다. 기술전시회는 IAEA 회원국 및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의 원자력 현황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기술전시회 개최식에는 IAEA 사무총장, 주오스트리아 대사, 회원국 수석대표 등 약 200명의 주요 인사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국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지켜보았다. 우리나라 기술전시회는 여러 회원

국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도국들의 양자 협력 요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으로 ‘한국 연구용원자로 기술(Research Reactor and its Technology in Korea)’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된 이번 제14차 기술전시회에서 한국은 한국의 연구용 원자로 관련 기술(연구로 설계, 운영, 실험 장치 개발 및 이용, 기술 자립 등) 개발 경험과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출 등의 기술 역량과 우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한편 한국의 전통 공예품인 접선 부채를 전국 유일의 접선 인간문화재인 금원 김대석 선생에게 의뢰하여 제작했는데 부채에는 한국의 태극문양과 IAEA 로고를 좌우 균형있게 새겨 한국과 IAEA와의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았다.

금년 기술전시회 개막식에는 1997년 제1회 전시회부터 개막식에 참석해 온 엘바라데이 전 IAEA 사무총장에 이어 2009년 11월 취임한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한국이 이룩한 원자력 기술에 매우 감명 받았다는 메시지를 방명록을 통해 남기기도 했다. ☸